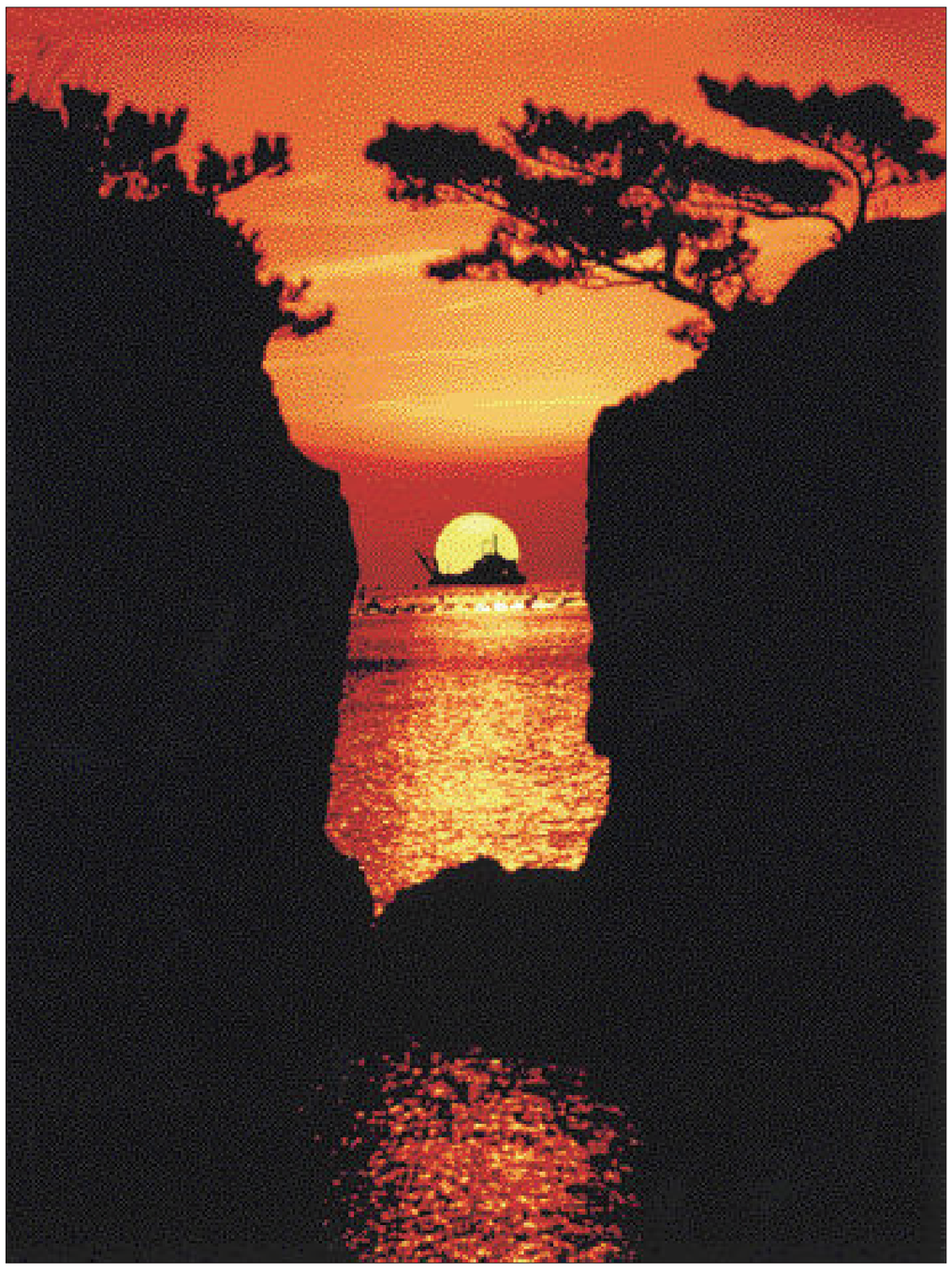
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기축년을 맞이하는 다채로운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전남 곳곳에서 열린다. 남도의 해맞이는 여수 향일암과 해남 땅끝이 최고의 명소로 꼽혀왔지만, 알려지지 않은 명소도 적지 않다. 해남 달마산 도솔봉 해맞이는 완도 청해진 일대 섬 사이로 솟아오르는 붉은 햇살을 감상할 수 있고, 무안 도리포는 함평만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또 고흥반도의 외나로도 봉래면 하반마을에서는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은 장엄한 일출을 구경할 수 있다.

(44) 전남 해넘이·해맞이 축제

남도의 山河에서 새 희망을 맞는다



올 한 해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가정과 기업, 국가 모두가 힘들었지만, 멀리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 새해를 헤쳐나갈 힘과 희망이 생겨난다.

영광 백수 해안도로 일몰

신안 증도 방축리 해안 일몰

■색다른 일몰·일출 여행지 찾는다면

영광 백수~목포 해안도로 서해 일몰 감상 최적

전남도 내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내 어느 여행지에도 뒤지지 않는 일출·일몰 명소가 적지 않다.

영광 백수해안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운치 있는 드라이브코스는 운전자들 사이에 서해안 일몰 감상에 최적지로 꼽힌다. 이곳 백수해안도로 동백마을에서는 칠산 앞바다로 지는 해를 볼 수 있고, 함평 돌머리에선 해제반도로 지는 해넘이를, 그리고 무안 도리포에선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신안지도와 증도 방축리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일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엄한 해넘이로 알려져 있다. 목포에서는 유달산 일등바위에 올라 고하도와 외달도 사이의 바다를 황금빛으로 채색하는 황홀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목포 배타고 보는 해맞이 축제
여수 향일암 엑스포 성공 염원
영암 '50리 물길' 위 소망 기원

▲목포서 배타고 떠나는 '선상 해맞이 축제'

내년 1월 1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3천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국제여객선터미날 선착장에서 삼호현대조선소 앞 다바까지 왕복하는 여객선 '퀸메리호' 선상에서는 해군 군악대의 해맞이 풍물과 모듬북 공연, 군악대연주 등 새해 일출을 감상하면서 소망을 다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퀸메리호 승선요금은 1인당 1만2천원이며, 문의는 씨월드고속카페리 1577-3567, 목포시청 관광기획과 061-270-8440

▲여수 '제13회 향일암 일출제'

오는 3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여수시 돌산읍 임포마을에서는 '새빛! 새희망! 새해맞이!'라는 주제로 제13회 향일암 일출제가 열린다. 행사에는 명인열전, 2012 엑스포 유치성공 불꽃쇼, 음악회, 갓김치 체험, 소망촛불 릴레이 등 부대행사도 곁들여지며, 돌산청사에서 국립공원주차장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문의는 여수시청 관광문화과 061-690-2042

▲고흥 '2009년 남열 해넘이 해맞이 행사'

내년 1월 1일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남열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는 해변 영화상영과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일출감상, 어선불꽃놀이, 해오름 카운트다운, 우주 풍등 날리기, 7080 라이브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또 부대행사로 캠프파이어장을 운영하며 2천 개의 소망풍선과 떡국, 유자차 및 석류차가 준비돼 있다. 문의는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30-5258

▲해남 '제12회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국토 최남단 해남 땅끝 마을에서 오는 3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해넘이제, 땅끝 가요콘서트, 줄굿 참여체험, 함께 뛰어보는 강강술래, 한해의 아쉬움을 접고 새해를 기원하는 촛불의식,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새해 1일엔 여명의 북소리, 띠배띄우기, 소망연날리기 등의 행사가 치러지며, 망등달기와 소망탑 쌓기, 소망담은 우체통, 굴구이, 떡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전국 대학생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토순례희망단 발대식도 갖는다. 문의는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229

▲영암 '2009 영암호 해맞이 축제'

새해 1일 오전 7시부터 호텔현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해맞이 축제는 '50리 물길' 영암호의 아름다운 일출을 배경삼아 개최된다. 새해소망 기원 대북울림, 해맞이, 소망떡국 나눠먹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부대행사로는 영암관광 사진전, 새해엽서 보내기, 신년 소원지 쓰기, 모닥불 피우기, 경비행기 축하비행 및 폭죽공연, 고구마 구워먹기 체험 등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문의는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241

▲완도 '2008 해넘이·2009 해맞이 축제'

완도에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드라마 '해신' 청해 포구 세트장에서 2008 해넘이 축제가, 1월 1일 오전 6시부터는 화흥포항 청해진카페리 선상에서 2009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해넘이 행사에는 청해수군임무 교대식, 송년 음악회, 해넘이 기원제, 레이저 쇼, 불꽃놀이 등이 준비됐다. 해맞이 행사용 청해진 카페리는 새해 1일 오전 6시 30분 화흥포항을 출발하며, 일출관망 및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전복죽 나눔과 다도해의 소안도, 보길도, 노화도 등 섬기행으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1천500명이며 참가비는 대인 3만 원, 소인 2만 원이다. 문의는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50-5421

▲진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31일 오후 3시 40분부터 한반도 최남단 제일의 낙조 전망지로 선정된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에서는 진도북놀이, 트럼펫 연주, 강강술래 등의 민속공연과 함께 해넘이 행사가 진행된다. 또 기축년을 시작하는 해맞이 행사가 의신면 첨찰산과 임회면 오봉산, 조도면 하도도 등대에서 함께 펼쳐진다. 첨찰산 해맞이 행사는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불고기 시식과 구기자차 무료시음 등을 통해, 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예향의 고장 진도의 따뜻한 인심을 전달하게 된다. 의신면 수품리 남망산과 임회면 오봉산 해맞이 행사에서는 진도의 특산물인 전복으로 떡국을 만들어 제공하고, 역시 진도 특산품인 울금과 구기자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40-3131.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